

# “광주는 괜찮나?”...지하철 공사장 인근 주민들 ‘불안’

경기 광명 신 안산선 붕괴사고에 오랜 기간 지하철 공사 중인 광주 서석동 상가 건물 침하·균열 등 지난해부터 민원 지속적 제기 시, 정밀 안전진단 등 조치 검토



14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인근 지역인 광주시 동구 서석동의 한 음식점 2층의 벽에 균열이 발생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기도 광명 신 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광주·전남에서도 지하철 공사로 인한 주변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도 지반 침하·건물 균열 등의 불안함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이 잇따르면서 간담회를 열고 공사장 일대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합동점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전국의 지하철 공사장 주변의 지반 침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광주 전역에서도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주민 민원 사항을 토대로 지하철 공사 현장에 대한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5공구) 건설 공사과 관련, 광주시 동구 서석동 일대 상가 주민들이 '피해보상 및 안전관리'를 요청한 데 따라 정밀안전진단 등 조치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당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 침하·균열, 영업중인 음식점·학원 누수 피해 등을 입었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광주시 등은 이와관련, 지난해 말 도시철도공사 자문위원 등 전문가들과의 현장 점검을 거쳐 '도시철도공사로 인한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 정도가 미미할 수 있으나, 건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통보한 바 있다.

주민들은 이같은 답변을 토대로 간담회 및 해당 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발주처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민원을 추가로 접수한 상태다.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반 침하 등은 2호선(1구간)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19년부터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 등은 지난해 6월 북구 풍향동 일대(599-40) 지반침하(폭 5.5m, 길이 4.5m, 깊이 1.8m), 동구 서석동 일대 2건의 지반 침하(폭 2m, 길이 5m, 깊이 1.6m), (폭 6m, 길이 5m, 깊이

1.9m), 지난 2021년 8월 서구 유덕1교차로 하부(상부중앙로) 지반침하(폭 1m, 길이 1m, 깊이 1.5m)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일부 지역민들 사이에서 지하철 공사와 관련있다고 주장하는 건물 기울임, 땅 꺼짐 등의 민원도 제기된 바 있다.

광주시, 광주교통공사는 이에따라 최근 도시철도공사 1호선 전 구간 구조물과 인근 지반 실태조

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도로 40km를 선정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영역을 실시키로 했다.

허정원 전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포트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을 엄밀히 조사하고 안전성 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 지자체·산업인력공단 대충대충 운영 60여년 공신력 무너진 기능경기대회

### 국토부 “드론 무자격자 참가 몰라” 전남선 심사위원·학생 유착 논란 9월 광주대회 앞두고 재점검 절실

기능경기대회의 공신력과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전국 17개 자치단체와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참가자 자격 관리는 커닝, 운영 규정 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기능인 양성을 내건 60년 명성에 먹칠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우수 기술력을 갖춘 기능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라는 점에서 학창시절 내내 실력을 갈고 닦아온 전국 대부분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부실한 시험 관리=14일 광주시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8-10일 광주 지방기능경기대회 종목 중 하나로 열린 '산업용 드론 제어' 시험은 참가 자격 논란에 휘말리면서 응시생들이 경기 중 뒤늦게 탈락하는 일이 빚어졌다.

산업인력공단 등은 애초 경기 참여자를 항공안전법에 따른 '2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갖춘 대상자들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무자격 참가자들을 대거 경기에 출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용 드론 제어' 시험의 경우 2인 1조로 이뤄지는데, 외부 조종자는 자격증을 갖춰야 한다는 게 부산시방항공청과 국토부 설명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그러나 광주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운영하면서 관련 자격증 보유 대상자들로 참가자를 제한하지 않은 채 경기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무자격자가 경기에 출전했다가 뒤늦게 탈락하는 가 하면, 전남에서 열린 기능경기대회에서는 무자격 참가자가 장려상을 받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산업인력공단에서 내려준 지침에 자격증 보유 여부가 전혀 언급되지 않아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다.

산업인력공단은 관련 종목을 시범종목으로 지정한 2021년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자격 유무를 공지하지 않았고 17개 시·도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지방기능경기대회 뿐 아니라 본선 격인 전국기능경기대회도 무자격자 참여를 제한할 수 없었다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무자격자 입상 여부도 가려낼 수 없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학생들 시험이라도 관련 자격이 있어야 한다"며 "드론 직종 기능대회에 무자격 참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회가 치러지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심사위원과 학생 간 유착 논란도 제기됐다. 전남 대회에서는 산업용 드론 제어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수가 특정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 학교 학생들과 시험 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해당 심사위원을 해촉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교체하기도 했다.

◇기능인 육성 시험 먹칠=전국기능경기대회에 학생을 참여시킨 광주지역 고교 지도교사 A씨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기능경기대회는 체육·고 학생들의 전국체전, 일반계고 학생들의 수능과 비슷하다"면서 "취업과 경력을 위해 일 년에 한 번뿐인 이 대회를 주말과 방학 없이 준비하는 형편인데 공단은 어떤 사고도 없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그만큼 중요한 대회라는 얘기다.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1, 2, 3위 입상자는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갖는다. 또 전국대회 입상자는 해당 직종 국가기술자격시험이 면제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참가직종은 상위 득점자 2명(팀)에게 국가대표선수 선발을 위한 국가대표표기전 참여 자격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부실한 대회 운영으로 어린 예비 기능인들의 기대와 신뢰감을 저버린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오는 9월 광주에서 치러지는 '2025 광주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대회 전반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도 요구되고 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광명 붕괴사고' 실종자 위치 파악 안돼 수색 난항

경기 광명시 신 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실종된 지 72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원들의 내부 진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1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 실종자인 포스코이앤씨 직원 50대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정확한 위치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가 11일 오후 3시 13분경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매몰 사고에서 통상 '골든타임'으로 알려진 72시간을 넘긴 상태다.

A씨의 휴대전화는 사고 1시간여 만인 당일 오후 4시 이후 아예 전원이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불가능해졌다.

구조당국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몇 분 전 A씨를 목격한 이들로부터 그가 '교육동' 컨테이너에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공사 현장의 컨테이너는 총 6개 동으로, 목격자들이 지목한 컨테이너에 대해 구조대원들이 육안

으로 확인 작업을 했는데, 내부에는 토사가 가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를 들어 올려 개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또 다른 안전지대에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경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 19명 중 2명이 각각 고립·실종됐다. 고립된 굴착기 기사는 13시간여 만에 구조됐으며, A씨는 지하 35~40m 지점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 박나래 집 금품 절도범 검거

방송인 박나래(40)씨 집에서 금품을 훔쳐 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례 간담회에서 "피의자 A씨를 지난 10일 검거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박씨의 용산구 집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탈아난 혐의(절도 등)를 받는다.

A씨는 앞서 3월 말에도 용산구에서 절도를 저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하던 중 박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사람과 A씨가 동일범인 것을 확인해 붙잡았다.

A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박씨 집에서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내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씨는 범행 나흘만인 지난 8일 뒤늦게 도난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